

## 남자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엄성호 · 최대식  
체육학부

###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여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둘째,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의 동반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셋째,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U시에 소재 5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자중학생 545명(참가자 224명, 비참가자 321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참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생활체육활동 참가여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생활체육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은 비참가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적응과 교우관계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학교수업 적응과 학교규칙 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생활체육활동 참가의 동반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친구와 함께」 참가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 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학교규칙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주 5회 이상」 참가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and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the Middle School Boy Student

Um, Sung-Ho · Choi, Dae-Sik  
School of Physical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and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middle school boy stud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45 students(224 participants and 321 non-participants) selected by the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from five middle schools in the city of U.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were better adjusted to school life than non-participa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and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relationship was adjusted with teacher and social relations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relationship was adjusted with school instruction and school regulation. Second,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accompanied by a friend were better adjusted to school life than non-participa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and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was a significant to difference when the relationship was adjusted with teacher, social relation, school instruction,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relationship was adjusted with school regulation. Thirdly, the more frequently participating students participated in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the better students were adjusted to school lif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and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relationship was adjusted with teacher, social relation, school instruction and school regulation.

## I. 서론

현대사회는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복잡한 사회제도로 인해 사회가 급변하므로 이러한 사회 변화에 자기의 욕구를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 하는 적응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한 인간의 원만하고 정상적인 성장 발달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과 밀접하며 그 중 중·고등학생 대부분이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음을 감안할 때 학교는 바로 그들의 생활 자체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이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적응도 순조롭지 못하다(이선엽, 1984).

이와 같이 중학생이 학교 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많은 적응 장애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보다 잘 적응된 생활을 영위할 것을 기대한다면 학교 적응의 문제는 학교 교사는 물론 남자중학생의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학생들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개척해 나가기 보다는 부모 및 학교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되어진 발달 과정의 틀에 구속된 채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청소년기를 인정해 주고, 생활의 폭을 넓혀주며, 활동 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스포츠와 같은 활동을 보장해 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조용하, 1993).

성장기에 있는 중학생들의 방과 후 체육활동은 참가자의 자발적인 참여 의욕을 강조하기 때문에 참가자 개인에게는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신체를 형성하며 개인의 정서 함양은 물론 사회성이나 도덕성의 발달에도 기여하기도 한다. 강신복(1982)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시간을 이용하여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과시간에 습득한 운동기술의 심화는 물론 선수층의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방과 후 체육활동의 강화를 주장하였으며, Kenyon과 McPherson(1974)은 방과 후 체육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기여하고 사회적 발달에 기여하며, 도덕적 가치를 갖게 하고 레크리에이션의 기회 제공과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순복(1994)에 의하면 학급 담임교사가 인지하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점수를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교사관계, 급우관계는 여학생이 높았으나, 수업참여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하고 있다.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다른 외적 요인 즉 성별, 가정환경, 학급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취, 사회적지지 등의 요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임경혁, 1994; 고순복, 1994). 반면 생활체육활동 참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인내심, 자신감, 협동심, 양보, 규칙의 준수, 리더십, 동료애, 경쟁심, 페어플레이 정신 등은 학교 생활을 원만히 적응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 때,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를 통한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 동반자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U시 교육청 소재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유층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표집틀을 작성하여 5개 중학교를 무선표집 하였다. 표집된 총 유효 표본 수는 617명이었으나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조사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72명을 제외한 545명(참가자 224명, 비참가자 321명)을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연구변인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변인은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생활체육활동 참가유무, 빈도, 참가동반자 유형 등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는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남자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유윤희(1994)의 <청소년 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생활체육활동 참가여부, 참가동반자 유형, 빈도 등 3문항과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32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신뢰계수는 Cronbach'  $\alpha$  = .5603 ~ .61789 이었다. 설문지의 응답형태는 리커트 5단계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 4. 조사절차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자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관한 조사> 설문지를 교실에서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자에게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 5. 자료처리

설문지의 응답 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SPSS/PC 7.5 Window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 기법은 두 집단간의 평균의 차를 검증하기 위한 t-test, 변량분석(ANOVA) 등이었다. 유의성 검증은  $\alpha=.05$ 에서 각각 검증하였다.

# III. 결과분석

본 연구는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결과분석에서는 생활체육 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생활체육활동 참가의 동반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1. 생활체육활동 참가여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중학생들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여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생활체육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분석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참가(n=224)	2.817	.551	4.04*	3.281	.557	4.50*	2.915	.449	1.05	2.946	.600	.333
비참가(n=321)	2.635	.492		3.070	.526		2.874	.434		2.929	.555	

표 1에 의하면 생활체육활동에 참가여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분석에서 교사관계적응은 생활체육에 참가한 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817±.551로 비참가 한 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 2.635±.492보다 교사관계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체육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교사관계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우관계적응은 생활체육에 참가한 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281±.557로 비참가 한 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 3.070±.526보다 교우관계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체육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교우관계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수업적응은 생활체육에 참가한 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915±.449로 비참가 한 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 2.874±.434보다 학교수업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체육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학교수업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규칙적응은 생활체육에 참가한 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946±.600으로 비참가 한 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 2.929±.555보다 학교규칙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체육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학교규칙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생활체육참가 동반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중학생들의 생활체육활동 참가동반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생활체육활동 참가의 동반자 유형에 따른 교사관계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반자 유형 중 「친구와 함께」의 교사관계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의 교사관계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우관계적응은 동반자 유형 중 「친구와 함께」의 교우관계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과 함께」의 교우관계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동반자 유형과 교우관계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생활체육활동 참가의 동반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분석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M	SD	F	M	SD	F	M	SD	F	M	SD	F
혼자	2.166	.803		3.166	.688		2.250	.760		2.625	1.023	
가족과 함께	2.510	.412		2.864	.501		2.661	.328		2.812	.410	
친구와 함께	2.865	.554	4.561*	3.347	.545	6.634*	2.965	.438	6.547*	2.970	.618	.871
친목단체와 함께	2.839	.295		2.964	.276		2.696	.461		2.875	.433	
전체	2.817	.551		3.281	.557		2.914	.448		2.945	.600	

학교수업적응은 동반자 유형 중 「친구와 함께」의 학교수업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의 학교수업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동반자 유형과 학교수업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규칙적응은 동반자 유형 중 「친구와 함께」의 학교규칙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의 학교규칙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동반자 유형과 학교수업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중학생들의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분석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M	SD	F	M	SD	F	M	SD	F	M	SD	F
주 1회	2.784	.717		3.250	.633		2.781	.507		2.765	.627	
주 2회	2.528	.415		2.843	.414		2.643	.355		2.621	.480	
주 3회	2.860	.482		3.342	.465		2.985	.408		2.993	.497	
주 4회	2.994	.331	10.454*	3.657	.510	15.615*	3.173	.362	10.799*	3.429	.666	14.456*
주5회 이상	4.625	.530		4.687	.441		3.812	.339		4.625	.530	
전체	2.817	.551		3.281	.557		2.914	.448		2.945	.600	

표 3에 의하면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교사관계적응은 「주 5회 이상」의 교사관계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2회」의 교사관계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교사관계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

에 따른 교우관계적응은 「주 5회 이상」의 교우관계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2회」의 교우관계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교우관계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수업적응은 「주 5회 이상」의 학교수업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2회」의 학교수업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수업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규칙적응은 「주 5회 이상」의 학교규칙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2회」의 학교규칙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규칙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생활체육참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참가여부, 참가빈도, 동반자 유형과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그리고 학교규칙의 관계를 분석 규명하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체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적응 그리고 학교규칙 준수 이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생활체육활동 참가와 비참가 학생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교사의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교사관계에 있어서 체육활동 참가학생들이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학교 및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조화로운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교우관계에도 체육활동 참가학생들이 비체육활동 참가학생들보다 더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onard(1988)와 권혁민(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체육활동 참가가 청소년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은 물론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며 정의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정영린(1990)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와 호기심 그리고 과제해결능력을 나타내는 학교수업관계와 자신의 행동통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학교규칙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차이가 있으나 같은 성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윤국진(1994)과 류상철(1982) 등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체육활동 참가는 성별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동성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중학교 시기는 남성은 더욱 남성다워지고 여성은 더욱 여성다워지는 시기로 신체활동은 남성의 인지적 활동은 여성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반자 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결국 체육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가족들이나 혼자 하는 것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Lever(1976)와 Duquin(1977)의 주장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생활체육활동 경험은 대인관계 및 집단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및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수동적인 활동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활동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함은 물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러한 관계들과 더불어 수업의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동반자 유형이 학교규칙 적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동반자 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결국 마음이 통하는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운동빈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운동을 5회 이상 행하는 학생들이 학교적응관계를 나타내는 4가지 적응 요인에 있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생활체육 활동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규칙의 준수와 스포츠맨십 등은 자기통제 및 자기수양을 유도하며 경기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협동과 역할분담으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한다는 임변장(1990)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결국 학교 적응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5회 이상 매일 생활체육활동을 행하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로 운동을 행하는 학생들보다 학교적응에서 4가지 모두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왕성한 신체활동을 요하는 중학생 시기에 많은 신체활동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생활체육활동 참가는 중학생들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기에 있는 중학생들이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박정희(1994)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것이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며 또한 참가하는 유형이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리고 많이 참가하는 것이 학교적응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학생의 학교형태에 알맞은 체육활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들의 신체능력 및 인지적인 사고능력과 자신감을 길러 줄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의 형태 개발이 이루어져 더욱 효과적인 생활체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여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둘째,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의 동반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셋째,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U시에 소재 5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자중학생 545명(참가자 224명, 비참가자 321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참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생활체육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생활체육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은 비참가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적응과 교우관계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학교수업 적응과 학교규칙



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생활체육활동 참가의 동반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친구와 함께 참가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 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학교규칙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생활체육활동 참가빈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주 5회 이상」 참가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신복 (1994). 체육교육과정 이론. 서울 : 보경문화사.
- 고순복 (1994). 남자중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임경혁 (1994). 학급환경, 학업성취,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선엽 (1984). 적응 및 부적응의 행동특성과 관계변인.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임변장 (1990). 생활체육의 의의 및 필요성. 스포츠 과학, 제 36호, 1-6.
- 정영린 (1996).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용하 (1993). 청소년 활동의 기초. 청소년 활동론.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Kenyon, G. S., & McPherson, B. D. (1974). Becoming involved in physical activity and sport : A process of socialization, In. G. L., Rarick(Ed), Physical acitvity :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NY : Academic Press.
- Leonard, W. M. (1980).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 Mineapolis, MN : Burgess Publishing Company.